

방학을 맞이하고, 조금 조용해진 교정에서 그는 오래 묻어둔 무언가를 마주하려면 지금이 딱 적기이지 않은가, 가늠하며 수첩을 넘겼다. 걱정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자리를 비웠다. 여차하면 찾아가야 하는 선생님들이 수행하시는 업무도, 음, 잘은 몰라도 학기 중 보다는 현저히 적을 것이다. 사실 조금 망설이는 건, 꼭 다른 사람에게 걱정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솔직하자. 반쯤 정신을 빼놓고 있는 사이 수첩을 빼곡히 수놓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의무를 시끄럽게 떠드는 글자들을 내려다보며 그는 조금 웃었을지도 모른다. 시작도 반이라죠, 조곤조곤하고 다정했던, 붉은색이 잘 어울리는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럼 나는 이제야 반을 할 수 있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미루고 회피하고 눈 돌린 문제를 마주보게 되었으니까.

첫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맞이하여도 여전히 반 이상의 짐이 풀리지 않은 구역을 보며 소리없이 입술을 달싹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많은 기로가 떠올랐다 망각에 쓸려가 남은 것이 지나치게 없어서, 그는 결국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걸 부끄러운 기록일지도, 사실 자기연마와는 관련 없는 기록일지도 몰라도- 이것도 가치있다고 말해준, 조금 수줍고 그럼에도 다정한 친구도 있었으니까. 괜찮겠지.

그는 습관적으로 나아갔고, 습관적으로 성장했고, 이유 없이 앞도 보지 못한 채 발을 내딛고 있었다.

“미트라씨.”

그리고 이걸 전부 그만두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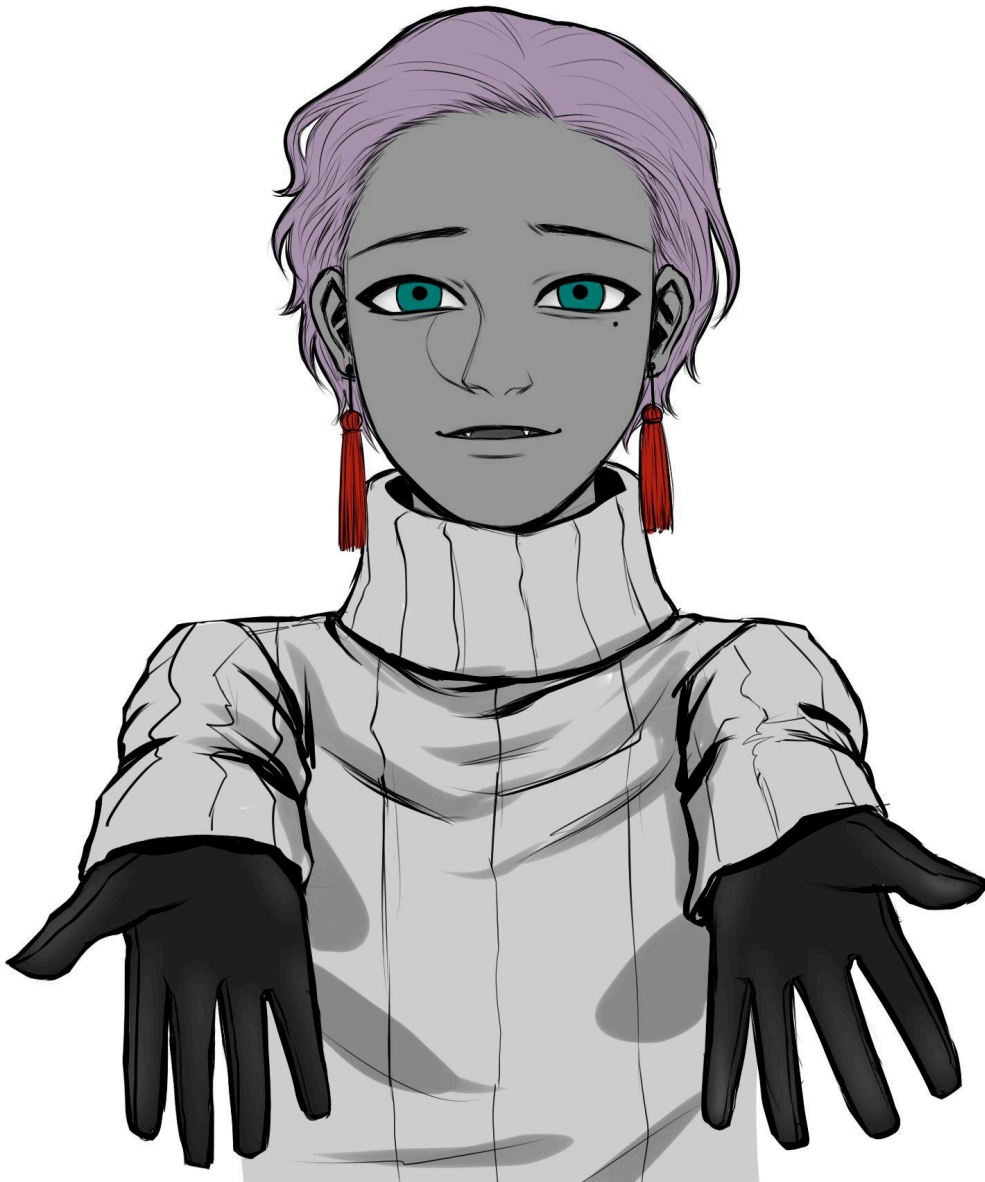
보장 없이 내딛는 발걸음을, 내딛고 시도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입고 얻고 잃고 웃고 기뻐하는 것이 모두 망각의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가는 것을. 절박함을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을. 성장을 입에 올리며, 모순적이게도 그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을. 조금, 얼굴이 미묘한 표정을 그린 것도 같았다.

‘네 해가 막 지났단다, 아이야.’

“네 해 씩이나 지나간거죠, 미트라씨.”

‘…네가 걱정된다, 아이야, 내 작은 승리야.’

“나는 승리였던 적이 없는걸요.”



허공을 향해서 짝 펼쳐진 손 위에는 얽힌 것 하나 없고, 생각조차 흘러가는 망각의 유수에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다. 이것을 승리라고 한다면, 그래. 이름의 앞 글자가 가끔 결합되어 읽히는 것과 같이, 혹은 그

당연한 의미가 가져오는 것과 같이 멸망시킨 것과는 동일하게 읽히기 때문에. 어느 승리에 기쁨만이 있던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동화가 아닌지는 오래 되었는데. 이진, 그레. 설핏 잠에 들어버린 저를 깨워준 친구가 기숙사 앞까지 같이 걸어오는 동안 말했듯, 거짓말 같은 현실이 되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서글펐던가, 아니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했던가. 남겨진 것이 수첩에 적어내린 작은 어구 뿐인 것을. 팔락이며 넘어가는 종이를 가만 내려다봤다가, 그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슬픔 하나 담지 않고, 조금은 결연하게.

“나는, 버금갈 뿐이에요. 언제나.”

다정에 버금가는 다정, 성장에 버금가는 성장. 수렴하나 결코 닿지는 못할 발버둥. 닿고 싶어 발버둥치는 절박. 그는 지쳤다. 정말로, 지쳐버렸다. 눈 감았을 때 어른거리는 소름끼치는 검정과 붉음이, 전혀 닮지 않은 친구에게 덧씌워져 무심코 입 밖으로 표현해버릴 정도로. 이 이상 잇는다면 본인마저 잊어버려야 괜찮아지겠지. 아니, 그러고도 괜찮아질 수 있던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으로 던져지는 감각은 익숙하고 또 서러워서, 가끔 아무도 마주치지 않는 밤에 비죽이 눈물이 났다가, 그 눈물의 이유조차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떨어져 내린 눈물이 수첩의 한 구석을 번지게 했을 때, 그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면 어찌지, 하고 생각하는 것 마저 흐릿해지는 것 처럼. 지긋지긋해서 또 눈물이 나왔다가, 익숙하게 잊었다.

‘다시, 다시 도망쳐도 된단다. 어디까지나 지켜보고, 어디까지나 들어주마. 아이야, 한 번만-’

“하지만 그건-”

미트라씨만 알게 하는 거잖아요. 불공평해요. 덧붙이는 어조에 물기가 어렸다. 약하고, 약하고, 또 약했다. 계약자가 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 상태로, 이 상황으로, 버림패가 아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서툰 친구가 짊어준 그대로였다. 그는 기능하지 못할 것이었다. 또, 또, 또- 흐릿하게 형상이 떠올렀다가 또 지워져서 기여코 울고 말았다. 아, 방학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울음에 소리가 섞여들지 않게 된지 오래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큰 소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꺾가에서 늘상 울리는 목소리는 또 얼마나 다정하여, 다행인지. 알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의 배려고, 나름대로의 다정이잖아요. 당신이 전능하지 않음을 알아요. 대답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중얼거리는 말들은 작았고, 몇몇은 뭉그러졌으나 귀를 고정하겠다 약조한 이에게는 어려움 없이 닿을 것이라.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약속했으니까.

### *도와주세요-*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지나가는 것을, 이것을 잊은 것은 몇 번이 되었을 것인가. 왜 하필이면 나잇대가 정해진 아이들일까. 그냥,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무수한 의문은 적혔으나 수첩을 넘기지 않는 이상 다시 떠올리지는 못해서 그대로 잊혀졌다. 잊혀졌나? 외면당했나? 후두둑 눈물을 떨어트리며 그는 웃었다. 항상 버금가던 아이가, 이번에는 제대로 도달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 뒤의 허공으로 손을 뻗었다. 어렸던, 동갑내기 친구가 여상하게, 가볍게 넘겨주었던 것 처럼 넘길 수 있기를 바라며.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포기해버리고 멈춰서기 전에. 선의 뒷쪽으로 갈래요.